

삼성·대림 U대회 선수촌 사업 포기 배경과 전망

“민원 많고 분양전망 불투명” 도시공, 공영개발 나설수도

광주시, 무리한 보증 요구 거절

국내외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선수촌을 조성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주민동의와 시공사 선정, 공사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가 속출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완공 시기가 못박혀 있는 선수촌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나 광주시도시공사 모두 애초에 주민동의나 시공사 선정 등 시작단계에서의 ‘알초’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광주시가 삼성이 ‘미분양 대책’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사업참여의 의미가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 물밑 협상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삼성과 대림이라는 굴지의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나 새로운 반전 요소가 없는 이상 참여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상에서 무슨 말 오갔나=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 U대회) 선수촌 조성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가장 공들여온 사업이다. 더 이상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손쉬운 개발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선수촌 조성을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는 민선 5기의 정책 및 사업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한 개발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행정이 최대한 노력해 다수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이 직접 삼성 고위관계자와 통화하며, 삼성의 참여를 독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3일 강 시장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상경하자 송귀근 부시장이 직접 삼성 임원과 만나 마지막까지 조율했으나 결국 입찰자를 뽑지 못했다. 이미 대구에서 미분양이라는 쓴 맛을 봤고, 광주 부동산 여건이 낫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이 미분양에 대한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치 삼성에서 참여하기 어려우니 어려운 조건을 내 건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보증을 서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삼성의 요구는 모든 건설업체의 속내이기도 하다. 선수촌이라고 해서 분양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수익에서 주민들의 몫까지 떼줘야 하는 실정에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향후 어떻게 되나=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에 애초에 주민동의서 9월30일, 시공사 선정 1차 9월30일, 본계약 12월30일, 착공 2012년 1월, 완공 2014년 말을 일점으로 정한 바 있다. 2015년 7월 초

에 광주 U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선수촌이 완공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추진일정이다.

광주시는 3일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본계약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 일정은 전체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는 완공과 대회 개최 시점에 6~7개월의 기간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의사가 있는 SK 등 8곳의 대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해 최소한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벗어날 경우 광주시는 ▲도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에 나서거나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조성 포기 및 도시 외곽으로 사업지를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에 나설 경우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해체되고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5000억원이 넘는 초기 투자자금과 미분양시 도시공사의 재정악화, 주민 민원 등이 걸림돌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참여업체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얻어 추진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대해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

李대통령 내외신 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60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경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뿐 아니라 경상수지의 종합적 평가를 갖자, 이를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고 평가해 모든 국가가 협조하는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들 경우 합의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의제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채택돼야 한다”면서 “개도국이 자립력을 갖도록 하는 100대 행동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대해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물론, 세계에 주는 영향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합의되면 좋겠다는 뜻을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논의한 바 있고 두 사람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정부는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으며 중심은 국회에 돼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개헌은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행정구역은 1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는 농경지 중심이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행정구역을 지켜가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호남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좀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 나올 수 있어야 정치가 전국의 의정을 끌고루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은 3일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강운태시장 국회서 지역의원 정책간담회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 5기 첫 해 외순방을 마친 뒤 상경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증액되어야

할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또 최인기 농림수산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에 의원, 김재운 의원 등을 만나 국회에서 추가확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편 광주시의 신규요청사업은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100억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설립 지원(42억원) ▲폐기물 전처리 및 전용 보일러 설치(100억원) 등 13건 909억원, 증액요청한 사업은 ▲광주연구개발 특구육성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 지원 등 7건 992억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 재고쌀 넘친다

광주지역 쌀 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수매량이 급증한데다 지난 2008년부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4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산 공공비축용 건조벼와 물벼 매입에 앞서 농협 창고 2곳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쌀 재고량은 1만1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00t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정부 양곡창고 37곳으로는 부족

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쌀 공공수매 29만 가마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쌀을 대규모로 소비했던 대북 쌀 보내기마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공공매입량이 15만여 가마로 줄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양을 매입했다면 농상에 쌓아둬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쌀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북 쌀 보내기는 여전히 지지부

공공수매 적체 北지원 중단

9월말 1만1000t 작년 3배

진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쌀을 구입해 북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성금·시비 등 모두 6억원으로 쌀을 구매해 북한에 보낼 방침이었으나 아직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구 장운동, 광산구 임곡동을 시작으로 2010년산 공공비축용 건조벼 15만5305포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0 군산세계 철새축제

The 7th Gunsan International Migratory Bird Festival 2010

기간 2010. 11. 10 ~ 11. 14

장소 금강철새조망대 및 금강호·은파생태공원일원

www.gmbo.kr